

##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방안

김 수 경

부산대 문헌정보학과 강사

ksk1101@hotmail.com

#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 1.3 연구의 제한점
2.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현황
  - 2.1 독서교실 연혁 및 개요
  - 2.2 독서교실 업무흐름
  - 2.3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현황
  - 2.4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현황
3.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 3.1 정체성 및 참여도
  - 3.2 교육내용
  - 3.3 인력
  - 3.4 사서재교육
  - 3.5 업무조직
4.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방안: 결론에 대신하여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요즘 우리 사회는 아이들에게 독서를 적극 권하는 사회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책 읽으라’는 어른들의 말이 반갑기보다 오히려 부담이다. 예전에는 오히려 공부에 방해된다고 독서를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강권하고 있다. 왜 갑자기 아이들에게 독서를 권하는 사회가 되었을까? 이는 무엇보다 그 원인이 대학입시에 눈술이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의 2008년 대입개선안에 따라 ‘독서이력철’의 도입,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독서지도 매뉴얼 개발과 활용, 2004년부터 부산시교육청 독서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등으로 학교의 학업수행과 관련하여 독서활동이 대입 점수와 연관되어 ‘교육’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각급 시도교육청에서부터 독서교육을 강조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독서교육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학습 진도 나가기 바빠서 독서교육을 따로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며, 독서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독서교육을 하자니 여러 가지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었다. 즉 소기의 성과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권장도서목록, 필독도서목록을 작성하여 책을 일률적으로 읽게 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일선 선생님도 부담이고 아이들도 독서 공부를 하기에 힘이 든다. 한편 학부모들은 독서활동이 수행평가로 점수화되니 불안하여 사교육시장을 찾아 ‘독서과외’를 시키게 되면서 학습 형태의 독서가 성행하게 되었다.<sup>1)</sup>

공공도서관에서는 제도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 독서’나 사교육시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법 중심의 ‘기능독서’와 ‘전략독서’를 지양해야 한다. 공공도서관은 제도교육에서처럼 독서교육을 ‘평가와 학습 수단’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며, 사교육시장에서처럼 ‘참여 학생의 수가 곧 수입’으로 연결될 필요가 없는 상업성이 배제된 공공기반 시설이다. 이것은 공공도서관의 존립 성격 자체가 곧 독서 본질에 가까우며, 독서 본질을 구현하기에 아주 적합한 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도서관의 가장 핵심 고객이며, 독서교육의 결정적인 시기인 어린이에게 독서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30여년의 전통을 가진 독서교실은 공공도서관의 기본적이며 핵심적인 독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참여 학생들을 주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서교실 운영에 학생들의 이탈 현상에 대해 몇몇 사서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몇몇 경험 많은 사서들은 30여년의 전통을 가졌지만, 관행대로

1) 김수경,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239.

운영되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운영의 과학화와 효율성이 필요하다고 한다.

독서교실은 어려서부터 독서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스스로 즐겨 독서하는 습관을 갖게 하며,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학습경험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 때문에 생애 초기에 속해 있는 어린이에게 있어서 독서교실을 통한 독서교육은 '생애독자', 도서관의 '생애이용자'로 이끄는 데 공공도서관의 핵심적인 서비스의 하나로 매우 중요하다.

독서교실은 보통 여름, 겨울 방학을 이용하여 1년에 2회 개최하는 방학독서교실이 일반적이며, 도서관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개최하기도 한다. 주 이용계층은 초등학교 고학년이다. 그리고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하루 동안 독서교실을 개최하는 일일독서교실도 있다. 일일독서교실 주 이용계층은 미취학아동을 비롯 초등학생 계층이다. 도서관에 따라서는 주부독서교실, 어린이독서교실, 청소년독서교실, 여성독서교실 등으로 특정 참여계층을 명시한 독서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독서교실 세부 교육내용은 올바른 도서관 이용법, 독서자료선택법, 독서감상문작성하기, 독서감상화그리기, 동화구연, 신문활용수업(NIE), 원고지작성법, 독서신문만들기, 이야기교실, 글짓기지도, 창의적 글쓰기, 영어동화, 책만들기, 논술지도 등이 있다. 근년에 들어 인터넷활용, 논술, 독서치료, 책만들기(북아트), 독서연극 등의 프로그램이 사회적 관심과 요구에 따라 일부 추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전국 공공서관에서 거의 일률적인 내용과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지역별 각 단위 도서관마다 그 지역의 요구와 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교육내용이나 실제 지도방법, 강사 수급 방법,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효율성 등 운영면에서는 참신성이 부족하며, 학교도서관 또는 다른 사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독서 프로그램과도 크게 차별화되지 않아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부합되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이 모호하며, 공공도서관만이 가지는 프로그램의 고유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공공서관에서 수행중인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독서교육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독서교실을 보다 근본 취지에 부합하여 체계적이며 다른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독창적인 운영을 위하여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어린이 대상 여름·겨울 방학 독서교실의 운영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접근성이 용이한 부산지역 22개 공공도서관<sup>2)</sup>을 대상으로 어린이실

2) 강서, 구덕, 구포, 금정, 기장, 남구, 동구, 명장, 반송, 부전, 북구디지털, 사상, 사하, 서동, 수영구, 시민, 연산, 영도, 중앙, 재송어린이, 해운대, 해운대구반여 도서관.

현황과 독서교실 운영 현황을 살펴보았다. 특히 22개 공공도서관의 2007년 겨울 독서교실 운영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중심으로 독서교실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22개 도서관의 2007년 겨울 독서교실 담당 사서에게 질문지를 이메일로 배포하여 답신을 받아서 독서교실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질문지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사서들과 전화 혹은 이메일과 직접 면담을 통해 데이터를 보완하였다.

### 1.3 연구의 제한점

독서교실이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되고 있어 독서교실을 실행하는 전국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전체 의견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연구 대상 도서관마다 모두 여건(소속 관청, 어린이실현황, 규모, 인력, 예산, 담당사서의 경력 등)이 달라서 독서교실 담당 사서들의 의견 또한 일반화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 또한 독서교실 참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하여 교육 수혜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 2.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현황

### 2.1 독서교실 연혁 및 개요

국립중앙도서관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바른 독서태도와 스스로 독서하는 습관을 기르고 도서관에서의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1971년 1월부터 독서교실을 운영하였다.<sup>3)</sup> 독서교실은 1971년 국립중앙도서관 분관에서 시작하여 1973년부터는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함께 여름·겨울방학 기간 중 10일씩 연 2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2005년도 독서교실 운영은 전국 514개 도서관 중 70회 겨울독서교실을 실시한 도서관은 294개관이며, 제 71회 여름 독서교실을 운영한 도서관은 341개 도서관으로 총 635개관이 참여하였다. 참가 학교는 7,231개교, 총 수료인원은 26,092명이며, 총 독서량은 173,119책(1인 독서량 6책)이고, 국립도서관장상은 448명에게 수여되었다.<sup>4)</sup>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주관하는 독서교실의 연혁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sup>5)</sup>

3)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국립중앙도서관, 2006, p.354.

4) 한국도서관협회, 『2006년 한국도서관연감』, 한국도서관협회, 2006, p.305.

5) 국립중앙도서관 편, 앞의 책, pp.354-358. 재구성.

〈표 1〉 독서교실 연혁

연도	연혁	비고
1971년	• '어린이 독서회'(아현분관)로 시작	• 국립중앙도서관 • 초등 어린이 대상 매년 2회(여름·겨울) 개최
1973년 여름~ 1976년 겨울	• '제1회 전국 여름 어린이독서학교' 운영	• 국립중앙도서관 • 전국 규모로 확대 • 우수 학생과 시도교육위원회 추천으로 지도교사와 지도사서에게 공로상 수여
1976년 여름	• '독서학교'에서 '독서교실'로 명칭 변경 실시	• 현재까지 여름·겨울방학 독서교실로 일컬어짐
1990년대	• 호응이 높아 시설과 프로그램 양적 확대	• 참가대상을 초등 3-6학년을 원칙으로 하되, 도서관 여건에 따라 중학생도 수용
1995년~현재	• 우수 독서교실 지도자 선정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실시 • '전국 독서교실 운영 사례집' 발간	• 독서의 달(9월) 중 표창 •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수여한 독서교실 담당자들의 모범운영 사례수록
2001년	• 수료증 단위 도서관 자체 제작 사용	• 국립중앙도서관장상 부상 상향 조정
2003년 1월 9일-21일	• 담당자 워크숍, 운영 현황 방문 조사	• 전국 16개 도서관 방문 겨울 독서교실 운영 현황 조사, 향후 독서교실 운영 지침 수립과 지원 개선 방안에 참고

1971년 1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시작한 독서교실은 2007년 겨울 독서교실에 이르기까지 총74회를 개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운영계획에 의하면, 독서교실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즐거움과 습관을 갖게 하고, 올바른 독서태도를 길러 독서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며, 도서관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통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함”이 그 목표이다.<sup>6)</sup>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어온 독서교실은 독서 생활화와 평생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국립중앙도서관이 주최하고 전국 공공도서관이 운영을 주관하는 공공도서관의 주요 사업의 하나이다.

독서교실은 어린이들에게 공공도서관에 대한 인식 전환과 독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하는 프로그램인 일일 독서교실을 운영하게 되어 도서관 이용교육 및 도서관 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독서관련 사교육 시장의 성행과 학업을 위한 학원 공부에 치중하면서 과거 앞다투어 독서교실에 참여하려고 하던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요즘에는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여도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을 뿐 아니라 도서관내에서 개별 모집을 하여도 정원을 못 채우는 도서관이 있다고 한다.<sup>7)</sup> 이를 뒷받침하는 예로, 부산 구덕도서관의 경우 2006년 여름 독서교실의 모집 정원은 40명이었으나 36명만이 등록을 하였고, 독서교실에 참여율이 저조하여 22-23명만이 참여하다가 결국 수료 인원이 17명에 불과하였다<sup>8)</sup>고 한다. 여름 독서교실 기간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과학캠프’와 같은 행사와 겹치거나 여름휴가와 겹치면,

6)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도 전국독서교실 운영계획」(2006. 11), p.1.

7) 조명숙,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실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p.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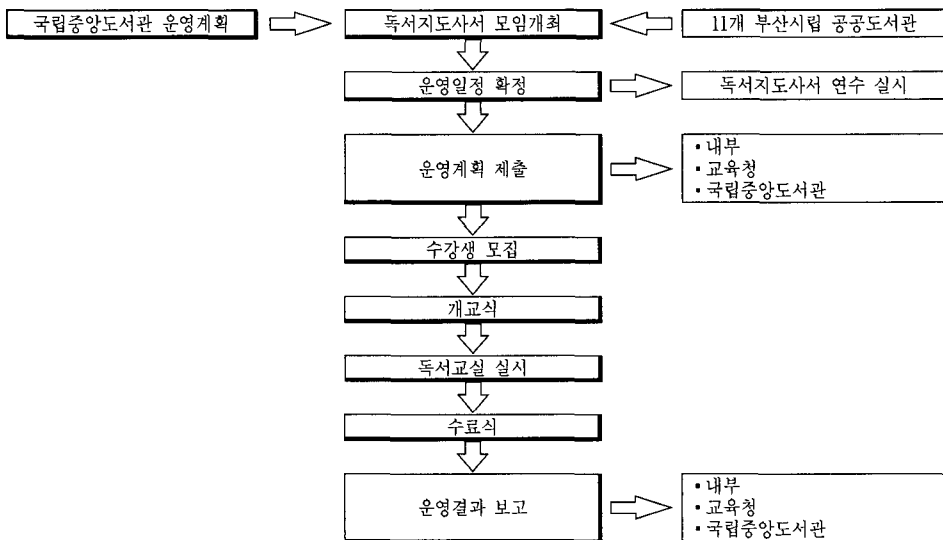
8) 부산구덕도서관 J사서와의 전화면담, 2007년 4월 16일.

겨울독서교실에 비해 여름 독서교실의 참석율이 저조할 수 있다고 한다.<sup>9)</sup>

독서교실은 과거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도 독서교육이 부실했던 시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국민 독서운동 전개차원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독서교육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독서교실의 개최는 독서기반 시설로서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여 독서의 생활화와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기여를 한 독서진흥 활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도서관의 내외부적인 업무 여건이 상당히 변하였으며, 무엇보다 이용자의 요구가 변하였고, 도서관에 대한 기대 역할 또한 사회적으로 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어린이도서관이 주목받으면서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좀더 전문적이며 다양성을 갖추며, 타 기관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다.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담당자는 어린이실 담당사서로, 일선 사서들에 의하면, 각 도서관마다 어린이실의 업무 비중과 부담이 늘어난 시점에서 전통적인 독서진흥 활동이라는 명목만으로 이루어지는 독서교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지원과 학교, 학부모의 협조 및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운영 방법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 2.2 독서교실 업무흐름

부산지역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업무절차 흐름도<sup>10)</sup>를 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부산 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업무절차 흐름도

9) 시립시민도서관 Y사서와 면담, 2007년 4월 18일.

10)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립시민도서관, 『단위업무 매뉴얼: [사업명] 독서교육』, p.1.

부산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업무절차 흐름도를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sup>11)</sup>

- 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수립한 <전국독서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자관에서 '세부 운영계획'을 세운다.
- 2) 독서지도사서모임 개최: 국립중앙도서관 독서교실 운영계획에 따라 독서교실을 담당하는 부산시 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사서들이 모여 세부일정(신청자모집기간, 운영기간 등)을 결정한다.
- 3) 운영계획 제출 및 사서 연수: 결정된 세부 일정을 도서관 내부,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에 제출하고 담당사서들을 위한 1일 연수(외부강사 초빙)를 실시한다.
- 4) 수강생 모집: 관내 20개 초등학교에 공문 발송하여 학교장 추천에 의해 40-50명의 신청자를 받는다.
- 5) 독서교실 교육 실시: 5일간 하루 4시간씩 독서교실 교육을 실시한다.
- 6) 수료식: 마지막 날에 수료식을 하고, 수료자들에게 수료증을 발급한다.
- 7) 운영결과 보고: 4-5일간 실시한 독서교실에 대한 결과를 도서관 내부, 교육청,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고한다.
- 8) 『독서교실』책자 발간: 부산시 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이 공동으로 '독서교실'이라는 제호의 책자를 발간하여 수료자와 해당 학교에 발송한다.

독서교실 운영 흐름을 간략히 요약하면, 관내 초등학교 20개교에 공문 발송 후 학교장 추천 혹은 개별 도서관별로 신청 접수 받아 40-50명을 대상으로 5일 내외로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수료 후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부산시 교육청 산하 11개 공공도서관에서는 독서교실 참여자들이 독서교실에 참여하면서 남긴 결과물들을 모아 『독서교실』<sup>12)</sup>이라는 책자를 발간한다. 수료자에게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독서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여 지속적인 독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 2.3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현황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어린이실 일반 현황은 다음 <표 2>와 같다.<sup>13)</sup>

11) 같은 자료, pp.3-4.

12) 『독서교실』은 부산광역시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에서 1983년 여름 독서교실을 수료한 후 창간호(1983. 8. 12)를 발간한후 매년 여름·겨울 독서교실 수료 후 공동 제작하여 현재 2007년 겨울 독서교실후 발간한 책자는 통권 48호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간략한 도서관이용법에 대한 안내와 각 도서관에 대한 안내 및 참여어린이들의 독서감상문, 독서감상시, 자유글쓰기, 프로그램 후기 등을 실고 있다.



〈표 2〉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어린이실 일반 현황

(예산단위: 천원)(소속: 교-교육청, 지-지방자치단체)

도서관명	면적 (㎡)	좌석수	자료수			연간이 용자수	2006년 예산				소속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		인건비	자료구입비	기타	계	
강서	74	24	8,731								지
구덕	57	50	14,824	3		76,479					교
구포	81	42	14,946	7		93,309		42,698		42,698	교
금정	956	157	23,407	3	1,045	155,765					지
기장	110	26	15,333			83,346					지
남구	282	66	25,154	7	485	210,840	62,000	30,000	3,570	95,570	지
동구	65	40	12,000	4		19,062					지
명장	77	30	17,455	5		68,976		11,700		11,700	교
반송	105	54	14,660	6		87,667	42,576	15,978		58,554	교
부전	151	50	24,701	9		61,357	70,474	28,657		99,131	교
북구디지털		62	14,332								지
사상		50	13,523	3		117,348					지
사하	172	44	17,491	8	61	117,635	5,160	32,088		37,248	교
서동	65	36	11,349	4		94,433	73,599	13,197		86,796	교
수영구	155	58	14,739	3	55	105,194	2,800	15,000	11,482	29,282	지
시민	473	116	39,026	12		122,840					교
연산	109	54	13,592	5		80,717		20,000		20,000	교
영도	123	52	14,117	4	237	64,569	20,000	18,000		38,000	지
중앙	366	124	25,625	2	10	141,663					교
재송어린이	636		11,608	50	4,019 (디지털자료포함)						지
해운대	34	30	19,002			70,937					교
해운대구반여		36	11,459	3		43,055					지
계	4,091	1,201	365,466	138	5,912	1,815,192	276,609	227,318	15,052	518,979	

〈표 2〉에서 보듯이 2007년 4월 현재 부산지역에는 22개 도서관에 어린이실이 있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11개 도서관(구덕, 구포, 명장, 반송, 부전, 사하, 서동, 시민, 연산, 중앙, 해운대)이고, 지방자치단체(구) 소속 도서관이 11개 도서관(강서, 금정, 기장, 남구, 동구, 북구디지털, 사상, 수영구, 영도, 재송어린이, 해운대구 반여)이 있다. 기장도서관에서는 최근 4월 24일, 독립된 건물로 '기장어린이꿈나무도서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시민도서관과 구포도서관, 재송어린이도서관에는 유아실과 어린이실이 따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면적이 10평(34㎡) 남짓의 가장 적은 규모인 해운대 도서관에서부터 300평(956㎡) 남짓 규모의 금정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시설 규모도 다양하고, 자료면에서도 8,731권의 도서만 구비된 강서도서관이 있는 반면,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시민도서관은 3만 9000여권의 장서를 보유하는가 하면, 2006년 10월 어린이 전용도서관으로 개관한 재송어린이도서관은 4,000여점의 많은 비도서자

13) 한국도서관협회. 『2006 한국도서관연감』. 한국도서관협회, 2006. pp.568-568-1. 『2006 한국도서관연감』의 통계수 록기간(2005. 1.1-12.31)에서 누락된 강서, 북구디지털, 재송어린이도서관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였다.

료(디지털자료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예산면에서도 어린이실 예산으로 따로 책정된 도서관(구포, 남구, 명장, 반송, 부전, 사하, 서동, 수영구, 연산, 영도)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도서관들도 있다.

## 2.4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현황

이 절에서는 부산지역 22개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담당 사서에게 ‘독서교실 운영 현황 및 개선점’에 관한 질문지를 이 메일로 배포하여 회신 받은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 1) 운영계획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 전국독서교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단위 도서관에서 독서교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교육계획에 대해서는 도서관에서 자체 개발하여 운영한다는 도서관이 20개 도서관이었고, 강서와 구포 두 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배부 받은 프로그램과 자체 개발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한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으로 독서교실 교재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도서관이 13개 도서관이고, 나머지 9개 도서관은 교재 없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현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독서교실 교육계획

도서관명 (교육청 소속)	교육계획		도서관명 (지자체소속)	교육계획	
	교육내용	교재유무		교육내용	교재 유무
구덕	자체개발	무	강서	국중+자체	유
구포	국중+자체	무	금정	자체개발	유
명장	자체개발	유	기장	자체개발	유
반송	자체개발	유	남구	자체개발	유
부전	자체개발	무	동구	자체개발	유
사하	자체개발	무(부산교육청도서관 공통교재 일부만 사용)	북구디지털	자체개발	유
서동	자체개발	무	사상	자체개발	유
시민	자체개발	유	수영	자체개발	유
연산	자체개발	무	영도	자체개발	유
중앙	자체개발	무	재송어린이	자체개발	무
해운대	자체개발	무	해운대구 반여	자체개발	유

### 2) 운영기간, 참가·수료 인원 및 교육장소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 전국독서교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운영기간은 방학 기간 중 도서관

장이 정한 7일 내외, 대상은 어린이 및 청소년이며, 인원은 도서관 사정에 따라 조정하지만, 각 회 60명 내외(학년분반)로 제시하고 있다. 모집방법으로는 개별, 학교장추천, 개별·학교장 추천을 병행하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시기, 참여 및 수료인원, 모집방법과 교육장소를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독서교실 운영기간 및 참가(수료) 인원, 모집방법, 교육장소

도서관명	운영시기(일수)	대상학년 참여인원(수료인원)	모집방법	교육장소
강서	'07.01.02 - 01.05(4)	3-4학년 26명 (3학년 14명, 4학년 10명)	추천+개별	시청각실
구덕	'07.01.02 - 01.06(5)	5학년 32명(17명)	추천+개별	문화강좌실
구포	'07.01.08 - 01.12(5)	5학년 34명(34명)	추천	기린초 강좌실
금정	'07.01.02 - 01.05(4)	4학년 50명(43명)	추천+개별	교양교실
기장	'07.01.02 - 01.05(4)	5학년 35명(31명)	추천	시청각실
남구	'07.01.02 - 01.05(4)	4학년 40명(38명)	추천+개별	교양강좌실
동구	'07.01.02 - 01.05(4)	3학년 40명(33명)	추천+개별	시청각실
명장	'07.01.08 - 01.12(5)	4학년 40명(31명)	추천	교양강좌실
반송	'07.01.08 - 01.12(5)	5학년 28명(28명)	추천	문화강좌실
부전	'07.01.08 - 01.12(5)	4학년 30명(23명)	추천	어린이실
북구디지털	'07.01.09 - 01.13(5)	4학년 40명(36명)	개별	정보문화교실
사상	'07.01.02 - 01.06(4)	3학년 37명(33명)	추천+개별	시청각실
사하	'07.01.09 - 01.13(5)	5학년 40명(36명)	추천	교양강좌실
서동	'07.01.08 - 01.12(5)	5학년 30명(27명)	추천	어린이실
수영구	'07.01.02 - 01.05(4)	4학년 27명(25명)	추천+개별	취미교양실
시민	'07.01.08 - 01.12(5)	4학년 40명(34명)	추천	시청각실
연산	'07.01.08 - 01.12(5)	4학년 30명(30명)	추천	어린이실
영도	'07.01.02 - 01.05(4)	4학년 40명(38명)	추천	도서관내 강좌실
중앙	'07.01.09 - 01.13(5)	5학년 40명(30명)	추천	향토자료실
재송	'07.01.09 - 01.12(4)	4학년 21명(21명)	추천+개별	시청각실
해운대	'07.01.02 - 01.06(5)	5학년 28명(23명)	추천	평생교육실
해운대구반여	'07.01.09 - 01.12(4)	4학년 30명(30명)	추천	시청각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기간은 대체로 4-5일간이며, 20차시 내외로 운영되고 있다. 대상학년은 강서도서관을 제외하고, 초등 단일 학년으로 3-5학년 대상을 모집하고 있다. 참여인원은 22개 도서관에서 총 732명이 등록하여, 665명이 수료하였다. 평균 33명이 등록하고 30명이 수료하였다. 모집방법으로는 학교장 추천만으로 모집한 도서관은 13개 도서관이며, 추천과 개별 모집을 병행한 도서관은 9개 도서관이었고, 도서관 개별로만 모집한 예는 없다. 교육장소는 어린이실, 시청각실, 도서관마다 명칭은 다르지만 평생교육실(문화강좌실, 정보문화실, 교양강좌실, 취미교양실 등), 향토자료실 등에서 도서관 사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었다.

3) 평가 및 시상여부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 전국독서교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평가는 출석률, 프로그램 참여도, 단체활동 기여 등을 고려하여 당해 도서관에서 배점 기준을 정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단, 시상 보다는 참여와 흥미유발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시하고 있으며, 독서교실 수료 후에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도록 설문내용을 별첨<sup>14)</sup>하였다. 독서교실 시상은 우수지도자<sup>15)</sup>와 우수 수료자<sup>16)</sup>에게 주는 시상이 있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평가 및 시상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평가 및 시상여부

도서관명	평가여부 및 만족도	평가문항의 적절성	평가 후 다음 독서교실 교육에 반영함	시상여부
강서	O(만족)	X	O	X
구덕	O(만족)	X	O	X
구포	O(매우 만족)	O	O	X
금정	X	O	O	X
기장	O(만족)	O	O	O(국립중앙도서관장상1명, 도서관장상3명)
남구	O(만족)	X	O	O(도서관장상 1명)

14) 설문내용과 분석 예시는 다음과 같다.

내 용		응 답	
① 흥미도	나는 독서교실이 즐거웠다.	예	%( 명)
		아니오	%( 명)
		모르겠다	%( 명)
② 창의성	나는 새로운 독서활동을 배웠다.	예	%( 명)
		아니오	%( 명)
		모르겠다	%( 명)
③ 이해도	나는 독서교실에서 경험한 것 대부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예	%( 명)
		아니오	%( 명)
		모르겠다	%( 명)
④ 체험 후 생각	이번 체험으로 독서에 많은 관심과 흥미를 갖게 되었다.	예	%( 명)
		아니오	%( 명)
		모르겠다	%( 명)
⑤ 만족도	이번 독서교실에 참여하길 잘 했다.	예	%( 명)
		아니오	%( 명)
		모르겠다	%( 명)
⑥ 참여도	독서나 도서관의 다른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싶다.	예	%( 명)
		아니오	%( 명)
		모르겠다	%( 명)

15) 대상은 사서, 교사, 전문가 등에 대한 우수지도자이며, 문화관광부장관 표창이다. 선정방법으로는 2007년 전국독서교실(겨울·여름) 종료 후 독서교실 운영에 참여한 지도자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한 자 중에서 선정한다.

16) 대상은 독서교실 참여 학생으로 도서관별 혹은 과정별 1명에게 국립중앙도서관장상을 수여한다. 출석률, 독서활동내용, 단체활동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당해 도서관장이 선정한다.

동구	X	X	X	X
명장	O(보통)	X	O	X
도서관명	평가여부 및 만족도	평가문항의 적절성	평가 후 다음 독서교실 교육에 반영함	시상여부
반송	O(보통)	O	O	X
부전	O(보통)	O	O	X
북구디지털	O(만족)	O	O	X
사상	X	O	O	X
사하	O(만족)	O	O	X
서동	O(만족)	O	O	X
수영구	O(만족)	O	O	X
시민	O(만족)	O	O	X
연산	O(만족)	O	O	X
영도	O(보통)	O	O	X
중앙	X	O	O	X
재송	O(만족)	O	O	O(도서관장상 1명)
해운대	O(만족)	X	O	X
해운대구반여	O(만족)	X	O	O(국립중앙도서관장상 1명, 도서관장상 1명)

독서교실 후 교육 평가는 4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실시하며, 참여자의 만족도는 보통이며,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평가문항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다소 많았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의 의견들이 있다. ① 평가항목이 너무 단순하여 단위도서관에 적합하지 않음. ② 흥미 있거나 흥미 없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묻는 항목이 없음. ③ 어떤 과목이 좋고, 싫은지, 어떤 독서성향을 가진 아이인지 구체적인 질문지가 필요하다. ④ 우리도서관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다. ⑤ 질문이 많이 추상적인 것 같다. ⑥ 항목이 신선하지 못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독서교실 평가 후에 다음 독서교실 프로그램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영한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독서교실 우수수료자 시상은 기장, 남구, 재송어린이, 해운대구 반여 4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상은 하지 않았다. 한 사서는 독서교실의 문제점으로 시상을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시상을 하는 경우 사서가 수업에 전념할 수 없고, 시상할 아이 선발하느라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sup>17)</sup>고 하였다.

#### 4) 교육담당자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 전국독서교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독서지도 지도자는 당해 도서관 사서가 하되, 관계 전문가 또는 학교 교사를 초빙하여 활용”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교육 담당자와 담당사서의 연수 경력은 다음 <표 6>과 같다.

17) 구덕도서관 사서 면담지.

〈표 6〉 교육담당자 및 사서의 연수 경력

도서관명	담당자(인원수)	담당사서 독서교육연수(기간)
강서	사서(1), 외부(0)	시민도서관(2시간), 개인 연수
구덕	사서(1), 외부(0)	국립중앙도서관 직무연수(5일)
구포	사서(2), 외부(1)	연수 경험 없음
금정	사서(2), 외부(4-5)	시민도서관(2시간)
기장	사서(1), 외부(3)	연수 경험 없음
남구	사서(3), 외부(3)	연수 경험 없음
동구	사서(2), 외부(2)	연수 경험 없음
명장	사서(2), 외부(1)	시민도서관(2시간)
반송	사서(1), 외부(1)	국립중앙도서관 직무연수(5일)
부전	사서(2), 외부(0)	국립중앙도서관 독서지도과정(6일), 평생교육원 동화구연지도자초급과정(6개월), 롯데백화점 독서지도자기초과정, 심성교육원 부설 독서치료 사이버(60시간), 심성교육원 부설 사이버 북아트과정 등
북구디지털	사서(2), 외부(3)	연수 경험 없음
사상	사서(1), 외부(5)	연수 경험 없음
사하	사서(2), 외부(1)	시민도서관(2시간)
서동	사서(2), 외부(1)	연수 경험 없음
수영구	사서(1), 외부(5)	개인 연수, 평생교육원 아동독서지도사(90시간)
시민	사서(2), 외부(0)	국립중앙도서관 독서치료기초과정(5일), 시민도서관(2시간)
연산	사서(2), 외부(1-2)	연수 경험 없음
영도	사서(2), 외부(5)	연수 경험 없음
중앙	사서(2), 외부(1)	연수 경험 없음
개송	사서(1), 외부(0)	시민도서관(2시간)
해운대	사서(2), 외부(2)	시민도서관(2시간)
해운대구반여	사서(1), 외부(0)	시민도서관(2시간)

독서교실 지도자로 대부분 어린이실 담당 사서가 담당하지만, 일부 도서관에서는 다른 실 담당자가 독서교실을 담당한다. 담당사서의 연수 경험은 대체로 일천하다. 비교적 도서관 경력이 있는 사서들은 국립중앙도서관 연수를 받은 경험이 있지만, 대부분 5년 내외의 신참에 속하는 사서들은 연수를 받은 경험이 없다고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독서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서들은 대학이나 문화센터에서 개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여 개인 연수를 받는 등 체계적인 연수 경험은 부족해 보인다.

한편,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는 1998년경부터 어린이실담당사서 모임을 가지고 어린이책에 대한 공부도 하였고, 독서교실 업무 관련 정보교환은 물론 자체 연수도 실시한다. 자체 연수를 할 때는 지자체 소속 도서관에도 연락을 하여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공부 모임은 중단된 상태고 여름·겨울 방학 독서교실 2-3주전에 모여 독서교실에 관한 의견 교환과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자체 연수를 실시한다고 한다. 2007년 겨울방학 독서교실 연수는 북아트에 대하여 직접 실습해 보는 형식으로 연수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독서교실 지도자로 외부 강사의 이력과 맡고 있는 프로그램 내용과 담당시수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표 7> 외부강사의 담당 프로그램

도서관명	외부강사 이력 및 활동			
	담당 강좌명(담당시수)	학력	전공	활동경력
강서	해당사항 없음			
구덕	해당사항 없음			
구포	연극으로 만나는 동화이야기(2)	대졸	연극영화과	연극배우
금정	노래로여는글쓰기(2), 독후미술활동(2), 역사논술(2), 북아트(2), 영어동화로 배우는 영어(2)	대졸		자원봉사, 여성인력센터
기장	모의재판(3), 팝업북만들기(3), 맛있는글쓰기(3)	대졸	문헌정보학, 국어국문학	문화강좌강사, 독서지도사, 논술강좌강사, 소설가 등
남구	독서치료(2), 풍선아트(2), 영어동화구연(2)	대졸	문헌정보학	공공도서관 및 문화센터 강의
동구	역사논술(4), 영어동화(4)	대졸	과학교육, 영어영문	협회 소속 전문강사
명장	재미있는 우리역사 인물(2)	대졸	사학	논술강사, 조상원아카데미 운영
반송	부산의 역사(2), 종이접기(2)		전문가	3-5년
부전	해당사항 없음			
북구디지털	시사논술(2), 영어강좌(2), 동화구연(2)	대졸, 고졸	교육학, 영문학	공공도서관 독서지도 및 역사논술강좌, 영어과목지도 및 영어학원강사, 동화구연 지도자협회 교육위원, 동화구연 강사
사상	점자교실(2), 푸름이 이동환경교실(2), 우리떡거리(2)	-	-	점자도서관장, 자원봉사, 환경보존협회 회원, 부산생활협동조합 회원 등 관련 협회 관계자로 학력 및 전공 불문
사하	1920-1940년대 우리문학	대졸	국어국문학 (독서지도사)	다양한 독서지도 수업강사
서동	신나는 논술 한마당(2)	대졸	문헌정보학	여성인력센터 어린이 독서지도사 강사
수영구	맛있는 글쓰기(2), 이야기 고구려사(2), 점자책과의 만남(2), 행복한 동화구연(2), 생활 속 캐릭터 디자인(2)	대졸	독서지도, 각 분야 자격증 소지자	타 도서관 강좌 운영 및 방과 후 교실 경험자
시민	해당사항 없음			
연산	영어스토리텔링(3), 색종이접기(3)	대졸		방과 후 활동 강사
영도	몸으로배우는동시(2), 그림책과놀자(2), 역사논술:건국신화(2), 신나는영어동화(2)	대졸	다양	독서지도 강사, 색동어머니회활동, 영어독서지도전문강사
중앙	종이접기(2)			
재송	해당사항 없음			
해운대	시낭송(2), 북아트(2)			동화구연가, 논술교실 담당
해운대구반여	해당사항 없음			

강서, 구덕, 부전, 시민, 재송어린이, 해운대구 반여 6개 도서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1-5명의 외부강사를 활용하고 있다. 외부강사가 맡고 있는 과목은 다양하다. 독서활동으로는 동화구연, 독후미술, 독서치료가 있고, 교과학습활동으로는 영어동화, 글쓰기,(역사/ 시사)논술, 역사인물 등이 있으며,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동화연극, 노래글쓰기, 북아트, 팝업북만들기, 종이접기, 시낭송, 풍선아트, 생활속캐릭터디자인 등이 있고, 향토문화 체험 활동으로는 부산의 역사, 시대문학 등이 있으며, 기타 체험활동으로 점자교실, 모의재판, 환경교실, 우리먹거리 등이 있다.

담당사서들은 외부강사를 활용하지 않는 도서관에서도 모두 외부강사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 이유로는 ① 예술 분야(예를 들면 연극) 등은 전문가가 진행하면 효과적이기 때문, ② 특강형식의 수업에 전문강사를 활용하면 독서흥미 유발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 ③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④ 아이들도 좋아하고, 사서들도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되기 때문, ⑤ 주제에 따른 전문성 때문 ⑥ 다양한 독서활동 경험을 위해, ⑦ 책읽기의 흥미유발 및 전문교육을 위해 ⑧ 교과학습과 연계된 독후수업(예. 영어스토리텔링, 역사 등), ⑨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한 선생님에 대한 신선함, ⑩ 다양한 수업구성과 담당자 수업부담 분담을 위해, ⑪ 교육효과가 높기 때문 ⑫ 사서의 능력상의 한계 때문 ⑬ 전문영역이 있으므로 ⑭ 독서의 즐거움을 배가시킬 수 있으므로 등의 의견들이 있었다.

### 5) 교육 방법 및 내용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 전국독서교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지도방법은 “개인지도 및 집단지도 병행”이라고 제시하고, 지도내용으로는 “독서력 개발, 도서관 이용, 기타 향토문화교실, 레크레이션, 문화체험 등”으로 제시되어 있다.

부산지역 독서교실 교육내용을 국립중앙도서관의 지도내용에 맞추어 영역별로 묶어서<sup>18)</sup> 정리해 보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교육내용

도서관명	교육내용(시수)				
	독서활동	도서관이용	교과학습 관련 활동	문화예술체험 및 레크레이션	향토문화
강서	좋은책 고르기(1), 독서(4), E-BOOK 읽기(2), 독서신문 만들기(1), 책 광고문 만들기(1), 영화보고 주인공에게 편지쓰기(2), 뒷이야기 이어쓰기(1)	도서관 및 자료이용법(1)	친구에게 상주기(1)	책 만들기(2)	
구덕	독서 교실 및 도서관 안내(1), 독서치료책 읽기(6), 독서기록장정리(3), 독서치료 상황(3), 독서엽서보내기(1)	도서관 이용과 정보 활용(2), 책치료(1.5)		북아트:나만의책만들기(1.5)	

18) 명확한 구분이라고 할 수 없지만, 책을 읽고 쓰고 그리는 것과 관련된 활동은 독서활동으로, 책읽은후 표현활동(시낭송, 연극, 역할극, 만들기)은 문화예술활동으로 구분하였고, 또한 책과 무관하거나 주제별로 교과목과 관련된 독서활동은 교과학습관련으로 분류하였다.



구포	책읽기여행(3), 독서토론(2), 감상문쓰기(1), 모듬신문제작(2), 독서골든벨(1)	도서관알기(1)	자유토론(2), 글쓰기(1)	연극놀이(2), 나만의 책 만들기(2)	
금정	독후감상법(1), 독서(4), 책 읽고 독후활동(3), 편지쓰기(1)	도서관 이용안내(1), 전자책과의 만남(2)	영어동화로 배우는 영어(2), 역사논술(2)	노래로 여는 글쓰기(2), 북아트(2), 독후미술활동(2)	
기장	올바른 독서(1), 독서(4), 독서 감상문(3), 독서감상화(2)	도서관 이용법(1)		모의재판(2), 팝업 북 만들기(2), 글쓰기(2), 나만의 장서인 만들기(2), 디지털 자료이용 및 영화 감상(1)	
남구	독서 감상문 및 원고지 쓰기(2), 인터넷으로 만나는 책(2), 독서(10), 독서치료(2), 즐거운 독서퍼즐(2), 독서신문 만들기(2), 독서 감상화 그리기(2)		영어로 배우는 동화 구연(2)	풍선아트 배우기(2)	
등구	동시읽기(4), 그림동시 및 발표(2), 독서논술(2)		인물과 함께하는 역사논술(4), 어린이 영어(4)	영화보기(1)	
명장	독서 감상문 작성법(1), 독서(4), 내가 존경하는 인물에게 편지쓰기(1)	도서관과 책의역사(1), 도서관 이용법(1)	재미있는우리역사 인물강의(1), 인물조사 보고서만들기(1), 역사신문 만들기(2)	나만의 역사책 만들기(2), 역할극(2)	
반송	원고지사용법(1), 좋은책고르는법(1), 책읽기(5), 독서감상문쓰는법(1), 작가&주인공인터뷰기사쓰기(1), 내가만드는독서퀴즈(1), 독서골든벨(1)	도서관이용법과독서이력서작성(1)		나만의책만들기(2)	부산의역사인물(2)
부전	신문 활용교실(1), 독후감상문 쓰는 법(1), 독서(4), 독서기록장정리(3), 독후감상화(3)	도서관소개(1)		시낭송(2), 레크리에이션(2)	
북구디지털	독서(3), 시사 논술(2), 독서 감상문 쓰는 법(1), E-BOOK(2), 책광고만들기(2), 독서퀴즈(2)	도서관 이용법(1)	동화로 배우는 경제(2), 영어는내친구(2)	영화감상(2)	
사상	좋은 책 선택법 및 독후감상문 작성법(1), E-BOOK교실(2), 독서(8), 독서 감상문 쓰기(1), 영화주인공에게편지쓰기(1), 독서 골든벨(1)	도서관 및 자료이용법(1), 일일사서 체험(도서관배틀이기-1)		점자교실(2), 책도장 만들기(2), 푸름이 이동환 경교실(2), 영화감상(2), 우리 먹거리 교실(2)	
사하	독서감상문작성법(1), 책읽기(3), 내가 퀴즈왕(1), 모듬독서신문만들기(2), 감상문 쓰기(1)	도서관 이용법(1), 도서관정보활용수업(3)	조별주제글쓰기(1), 자유글쓰기(1)	1920-1940년대우리문화 감상책만들기(2)	
서동	독서감상문쓰기(3), 독서(2), 이야기들려주기(2), 독서퀴즈(2)	도서관 이용법(1), 정보문제해결모형지도(2)		노래배우기(2), 영화보기(1), 독서 플라쥬 만들기(2)	
수영구	독서(6), 모듬광고지만들기(2), 독서퀴즈(1), 책읽기(4)	도서관 자료 이용법 및 자료실 견학(2)	역사논술NIE(2), 맛있는글쓰기(2)	미술동화구연(2), 점자 책과의 만남(2),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2.5), 빛그림(1), 음악과함께 그림감상(1)	
시민	좋은책 고르기와 독서(3), 독후 감상화 그리기(2)	도서관 이용법(1), 정보활용교육(4)		독후 연극(2), DVD감상(2)	
연산	독서치료 책읽기(2), 시 쓰기(1), 스토리텔링(2), 독서신문 만들기(2), 독서 골든벨(1)	도서관이용안내(1)		나만의책만들기(2)	우리강산의 역사와 지리 이야기(2)
영도	독서(7), 독서열서 부모님께 보내기(2), NIE 신문활용(2), 그림책과 놀자(2), 전자책 활용(1)	도서관 및 자료이용법(1)	역사논술(2), 영어동화 배우기(2)	몸으로 배우는 동시(2), 영화감상(1)	
중앙	독서치료 책읽기(3), 독서감상문(2), 시쓰기(1), 독서신문 만들기(1), 독서퀴즈(1)	도서관이용법(1)		신기한 종이접기(2), 독후수배지만들기(1), 책만들기(2)	
재송	독서(8), 독서치료(4), 독서감상문작성법(1), 인터넷으로 만나는 책(1), 도서관관련 책읽고도서관 동요짓기(1), 이야기 듣고 감상화 그리기(2)	도서관 이용교육법(1), 자료검색대회(1)		나만의 장서인 만들기(1)	
해운대	도서관 소개(1), NIE 신문활용(1), 독후감상문 쓰는 법(1), 독서(4), 독후감상화(4)			시낭송(2), 책 만들기(2), 레크리에이션(2)	
해운대구반여	독서(7), 독서록 정리(3), 인터넷 정보사냥(전자책 체험하기-2), 원고지 작성법(1), 동시수업(집단장작-2)	도서관이용법(1)		옛이야기 조각보 만들기(2), 영화감상(2), 역할극 놀이(2)	

몇몇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도서관마다 유사하다. 영역별로 보면 독서활동에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고 있고, 그 다음이 문화예술체험활동에 배정하고 있다. 독서기간 내내 결석없이 완전한 출석율을 보여 학생들의 열의가 있었다고 평가하는 수영구도서관의 경우, 독서교실 참여학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독서교실 내용에 거의 모든 학생이 만족하였고, 특히 시각장애인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점자책과의 만남’ 및 동화구연을 미술과 접목한 ‘행복한 동화구연’ 시간의 호응도가 제일 높았다고 한다. 그리고 추후 더 배우고 싶은 것으로는 점자책과의 만남, 동화구연, 캐릭터만들기, 이야기고구려사, 맛있는 글쓰기, 북토크가 있었고, 독서교실에서 경험하고 싶은 다른 것으로는 줄글을 만화로 만들기, 독서연극, 독서관련 영화감상, 책만들기, 독서습관, 우리나라역사, 만화그리기 등이 있었다고 한다.<sup>19)</sup> 이 평가에 따르면 평소에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형 수업이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이다.

한편, 각 도서관의 운영 결과에 따르면, 독서교실 기간 동안 책 읽은 양은 다음 <표 9>와 같다.

<표 9> 독서교실 참여학생의 독서량

도서관명 (교육청 소속)	독서량		도서관명 (지자체소속)	독서량	
	일간 총량(인원)	1인 평균		일간 총량(인원)	1인 평균
구덕	5일간 197책(17명)	11.58책	강서	4일간 81책(26명)	3.1책
구포	5일간 255책(34명)	7.5책	금정	4일간 225권(43명)	5권
명장	5일간 99책(31명)	3책	기장	4일간 183책(31명)	6책
반송	5일간 182책(28명)	7책	남구	-	-
부전	-	-	동구	4일간 462책(33명)	14책
사하	5일간 252책(36명)	7책	북구디지털	-	-
서동	5일간 128책(27명)	4.7책	사상	5일간 206책(33명)	5.5책
시민	5일간 204책(34명)	6책	수영	-	-
연산	5일간 112책(29명)	3.9책	영도	-	-
중앙	5일간 189책(30명)	6.3책	채송어린이	-	-
해운대	5일간 153책(23명)	6.6책	해운대구 반여	4일간 168책(21명)	8책

위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4-5일간 1인 평균 독서량은 약 6.5책 가량이다. 1973년 제6회 겨울방학 독서회의 경우 20일에 걸쳐 시내 29개 학교에서 100여명의 어린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어 이 중 98명이 수료하였다. 이들은 새가정반(1·2학년) 20명, 새마을반(3·4학년) 40명, 새나라반(5·6학년) 40명으로 나뉘어 사서의 지도하에 선정도서를 읽었는데, 전체 어린이 독서률은 1인당 17책에 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1973년 여름 제1회 전국 여름 어린이독서학교를 운영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직업 운영한 어린이 독서학교에서 8월 1일부터 10일간 다람쥐반(1·2

19) 수영구도서관 2007 겨울방학 독서교실 운영결과보고.

학년) 19명, 토끼반(3·4학년) 37명, 사슴반(5·6학년) 31명 등 41개 초등학교에서 87명의 어린이가 참여하였다. 읽은 책은 총 1541책으로 평균 독서율은 1인당 18책에 이르렀다.<sup>20)</sup> 1973년 겨울, 여름 독서교실 운영기간은 각각 20일과 10일이지만 1인 평균 독서량은 약 18책으로 비슷하게 읽었다. 현재는 1973년에 비해 독서교실 운영기간이 5일 내외로 단축되어 책 읽는 양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1인 평균 독서량은 거의 기간에 상관없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의 <표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독서교실 교육내용은 그래도 독서활동이 주종을 이루며, 문화예술체험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각 도서관의 결과보고에서도 참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이나 평소에는 잘 접해보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강의식 수업보다는 체험식 수업이 훨씬 흥미를 가진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독서지도 방법으로는 강서도서관의 예를 들어 설명하면, “개인 및 집단지도를 병행하여 창의적 독서활동”한다고 계획하였다. 지도내용으로는 “독서교실 선정도서”를 독서후 수업 및 독서활동으로 진행하며, 독서후 독서기록장을 작성하게 하여 개인별 독서지도”를 실시한다고 계획하였다. 대부분의 도서관들이 강서도서관의 방법과 유사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 3.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점

각 도서관마다 지역적 특성이나 규모 및 여건이 다르지만, 독서교실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한다. 즉 참여도의 문제, 인력의 문제, 담당사서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지속적 교육의 필요성, 예산문제, 시설미비 등을 들고 있다. 각 사안에 대해 사서들이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1 정체성 및 참여도

도서관 근무 경력이 길고, 어린이실 담당경력이 많은 사서는 우선 독서교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10여 년 전 아이들과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고 하는 작업이 아주 진지하게 잘 진행되었다면 요즘 아이들은 글 쓰는 행위를 너무 싫어한다. 학원 때문에 독서교실을 자발적으로 오는 아이들은 아주 드물며, 학교의 추천을 받으면 선생님이 억지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주 드물게는 떠들

20) 국립중앙도서관편, 앞의 책, pp.354-355.

어서 벌칙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렇다 보니 각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고 느낌을 이야기하고, 글로 풀어내고 하는 힘든 작업을 포기하고 대부분 체험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독서교실이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 기관장들은 여전히 모집인원에 연연해하고 있다(구덕도서관 면담지).

마찬가지 10여년의 도서관 경력의 사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각종 학원 수강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독서교실에 참여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과 사설 독서교육 및 논술교육기관이 보편화됨에 따라 도서관에서의 독서교육의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명장도서관 면담지).

학업의 비중이 커져 학원수강이 보편화되고, 다른 타 기관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독서교실의 교육내용은 독서교실의 참여도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도 아니고 독서교실 담당실무자도 아니지만, 도서관 근무 경력이 20여년으로, 독서교실에 애착을 가지고 그에 관한 연구와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사서사무관의 이야기도 이를 뒷받침한다.

초창기 비하여 학생들 또는 학부모들의 독서교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 그 이유를 들면, 상업적인 독서교육기관의 번창으로 인해 도서관 교육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실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며, 이와 더불어 과중한 입시제도로 인해 학력 향상을 위한 교과관련학원에 가는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의 교육과정이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더불어 각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다양화로 인해 평상시에 독서와 관련된 강좌가 항상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sup>21)</sup>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상시적인 독서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설도 독서교실 참여도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독서교실 모집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학교장 추천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학교장 추천의 경우,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강제(?)추천, 심지어는 별로 오는 경우도 있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의사가 매우 부족하다. 학교장 공문 발송, 홈페이지 탑재, 지역사회기관과의 연계 등을 활용한 독서교실 홍보 활성화 등으로 추천에 의한 강제적인 참여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

21) C도서관 J사서사무관과의 이메일 면담(2007년 4월 25일).

적인 참여의사를 이끌어 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구포도서관 면담지).

무엇보다 독서의 본질은 자율성에 있다. 그러나 독서에도 '교육'이라는 명목이 서면 어김없이 강제되기 십상이다. 독서교실의 모집방법은 학교에 홍보는 하되, 독서교육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며, 또한 자발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기관과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겠다.

### 3.2 교육내용

독서교실 정체성과 참여도 문제는 곧 교육내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서들의 말을 들어 보자.

'독서교실'이라는 것이 도서관만이 할 수 있다는 전문성이 부족한 것 같다. 요즘은 누구나 논술과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활동을 체험하는 학습이 많은데 도서관에서 차별화된 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사상도서관 면담지).

독서교실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거나, 책을 읽고 연극으로 표현하거나 하는 책과 예술이 만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단순한 체험위주의 수업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현재 30명 이상으로 진행되는 수업은 무리가 있다. 2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본다. 국중지침에 20명 내외로 규정을 지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구덕도서관 면담지).

아이들에게 관심과 신선함을 안겨 줄 수 있는 매력 있는 내용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럼 과연 어떤 것들이 아이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 독서교실의 프로그램 운영목적이 어린이들에 많은 책을 읽게 하기 위함이 목적인만큼 어떤 형식에 얽매임보다는 평상시에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한 독서교육활동들을 개발하고 진흥해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학이라는 한정적인 기간과 어떤 특정한 학년에 구애받지 말고 연중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지속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는 독서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다.<sup>22)</sup>

독서교실은 목적 자체가 책읽기에 있다. 책읽기에 무관심하던 아이들에게 책읽기의 흥미를 유발하고, 책읽기를 좋아하던 아이들에게는 보다 더 다양한 책과의 경험으로 이끌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핵심은 책읽기에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획일적인 책

22) C도서관 J사서사무관과의 이메일 면담(2007년 4월 25일).

읽기는 금물이다. 책을 읽고 하나의 정답을 찾는 책읽기는 독서의 본질에서 빗겨나 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하는 독서관련벨과 같은 ‘퀴즈식’ 책읽기가 그것이다. 프로그램 진행방식의 흥미는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사실형 지식을 암기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학습형 책읽기다. 읽고 나서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 이름이나 시대배경 등에 대해서 잘 몰라도 책읽는 중에 등장인물에게 동일시를 느끼고 그에 따른 카타르시스와 통찰력이 생겨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침을 얻고 책이 주는 심미적 예술성에 흠뻑 취해보는 경험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최근에 아이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책과는 무관하거나 단순한 체험 중심의 프로그램도 더러 있다. 그러나 단순한 체험 프로그램은 지양하여야 한다. 체험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의 세계를 넓혀 나가면서 성장으로 안내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무엇보다 독서교실에는 ‘책’과의 만남이 있는 ‘체험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참여 인원수가 지금 모집인원보다는 좀 줄어야 한다.

### 3.3 인력

인력문제는 어린이실 업무가중으로 인해 독서교실 담당 인원의 부족과 독서교실 담당자로서 독서교실을 운영할 전문성의 결여를 들며, 교육의 필요성을 함께 제기하였다.

우선 독서교실 담당사서의 경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 10>과 같다.

<표 10> 독서교실 담당사서 근무경력

도서관명 (교육청 소속)	경력		도서관명 (지자체소속)	경력	
	도서관	어린이실		도서관	어린이실
구덕	17년	7년	강서	5년	4년
구포	1년 미만	1년 미만	금정	4년	6개월
명장	15년	2년	기장	2년	-
반송	17년	8년	남구	5년	1년
부전	17년	9년	동구	1년	1년
사하	11년	2년	북구디지털	3년	3년
서동	9년	1년	사상	5년	1년
시민	18년	1년	수영	3년	1년 6개월
연산	11년	5년	영도	7년	1년
중앙	11년	2년	재송어린이	4년	6개월
해운대	1년	1년	해운대구 반여	1년	1년

어린이실 인력면에서도 대체로 시민도서관(어린이실과 유아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음)에는 3명의 정사서와 1명의 보조사서가 있는 경우도 있는 반면, 정사서 1명, 업무보조 기능직 1명을 두거나 규모가 작은 도서관에서는 1명의 정사서가 어린이실을 담당하기도 한다. 가장 열악하게는 자치단체

소속의 일부 도서관(기장, 사상, 영도)에는 기능직이 대출반납을 중심으로 어린이실 업무를 담당하며, 독서교실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는 다른 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럴 경우에는 독서교실 업무가 덩으로 여겨지며, 지속적으로 독서교실에 대한 준비나 업무 연계도 곤란하다.

또한 위 <표 10>에서 보면 교육청 소속과 지자체 소속 어린이실 담당 사서의 업무 경력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는 신규 사서의 충원이 드물기도 하고, 어린이실 업무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커지다 보니 경력 없는 사서에게 맡기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 각 도서관의 사정상 어린이실을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 지자체 소속 도서관은 역사도 짧은데다가 대체로 신규 사서를 어린이실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보니, 도서관 경력은 물론이고 어린이실 담당 경력이 미천하다 보니 독서교실을 포함 어린이실 행사를 꾸려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고 한다.

최근 도서관 행사의 중심이 어린이실과 평생교육과로 집중됨으로써 어린이실 업무는 이전에 비해 도서관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게다가 최근 독서교육 붐이 일어나면서 어린이실의 기본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대출반납 업무량도 상당히 늘어났다. 유아실 담당사서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어린이실 업무가 얼마나 과중한가를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다.

도서관 대부분의 행사를 어린이실에서 이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어린이실 담당사서는 행사 기획 전문가를 요하게 되었다. 대출반납 업무는 기본 업무에다가 학교의 독서교육 정책과 맞물려 각종 독서관련 행사며 대출량이 상당히 늘어났다. 주말에는 대출과 반납이 2000여건씩, 도합 4-5000권 정도이다. 하루 종일 대출반납하느라 정신이 없다. 어린이도서관 세미나에서 한 사서가 주말에 어린이실 이용자들을 일러서 “들소떼들이 몰려온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다. 정말 이 말에 공감한다. 또한 어떤 때는 학교에서 나누어준 필독서라며 책을 찾는데, 어린이책은 똑같은 책이 제목을 조금 바꾸거나 새출판사에서 새로운 판형으로 출판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꼭 그 출판사의 그 책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지하 서고까지 가서 빛바랜 책을 찾아주기도 한다. 학교 선생님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어린이실도 어린이실이지만 유아실은 한 술 더 뜬다. 말이 좋아 책놀이터이지, 정말 기본 소양이 안 되어서 인지, 부모들이 '내 아이 중심'으로 사고하다보니 책을 몇 십권 쪽 늘어놓고 났고 다녀도 뭐라고 제지도 않고, 또 몇 십 권씩 쌓아서 읽고는 그대로 제자리에 둔다. 책 읽는 소음 또한 만만찮다. 유아이다 보니 저마다 아이에게 책을 큰 소리로 읽어주니 한 두 사람이면 몰라도 주말에 몇 십 팀이 와서 책을 읽어대면, 이걸 도서관인지 시장인지 구분이 안간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공공장소에 대한 예의가 전혀 없다. 아마도 소음 측정을 해보면 꽤 높게 나올 것이다. 업무 환경 또한 매우 열악하다. 이용자 교육이 꼭 필요한 대목이다.<sup>23)</sup>

23) S도서관 L사서와 면담(2007년 4월 18일).

어린이실 업무량과 업무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들의 소양교육과 학교의 물량주의적인 독서교육의 획일성이 바뀌어야 한다.

또한 독서교실은 방학 중에 이루어지므로 독서교실에만 전념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독서교실 운영기간이 방학 중이라 학기 중 보다 어린이실 이용율도 높는데다가 수업도 진행해야 하므로 업무가 과중하다. 수료 후 결과보고와 독서교실회지 편집으로 인한 독서교실 업무가 그 다음 달까지 이어짐으로 인해 피로가 누적된다. 독서교실 수업과 어린이실 고유 업무의 중복으로 인한 업무과다로 인한 인력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어린이실 담당자는 최소 2명이 확보되어야 한다. 차선으로 독서교실 운영 보조요원 투입이 절실하다(부전도서관 면담지).

어린이실을 운영하면서 독서교실 준비와 교육, 마무리까지 모두 해내야 하는 힘든 현실이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로는 수업하다가 나와서 밥 교대하고 다시 수업 들어갑니다. 독서교실 준비를 위한 별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수업 끝나면 어린이실에 와서 바로 대출·반납하고 책 꽂기 시작합니다. 사서가 독서교실 수업하는 5일 동안, 또 한 명의 근무자 또한 방학이라 미어터지는 어린이실을 혼자 맡아야 하므로 고생하기는 매한가지입니다. 독서교육에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대출 반납 등의 잡무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어린이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독서교실 관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사하도서관 면담지).

운영 인력 부족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사상도서관의 경우 사서 1명의 가용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담당사서 한 사람이 강사 contact과 수업준비, 학생지도까지 다 하기에는 무리입니다(사상도서관 면담지).

담당사서는 2명이지만 실제로 준비하는 사람은 어린이실담당자 한 사람이다. 짧은 기간에 바쁜 방학시즌에 어린이실 담당일도 바쁘게 독서교실 때문에 거의 야근하는 수준이다(기장도서관 면담지).

이처럼 최근 어린이실 업무는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다. 대출반납 업무는 기본이고, 일일 독서교실, 토요 체험교실, 여름·겨울방학 독서교실,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프로그램 등의 교육과 행사 기획을 담당하다 보니 아무리 어린이실 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몸이 먼저 지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린이실 업무만 담당하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한 중간관리자와의 다음 이야기 속에서도 어린이실의 업무강도가 강하다는 것을 엿 볼수 있다.

능력있는 사서가 어린이실을 담당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프로그램이 알차다. 그런데, 본인이 타 부서로 이동을 요구하면 더 해달라고 강요할 수가 없다. 현재 어린이실 사서의 전문성 문제로 순환근무제의 폐해를 제기하지만, 어린이실 업무 강도를 보면, 오히려 순환근무제가 있어서 어린이 실업무가 돌아간다는 아이러니가 있다.<sup>24)</sup>

이러한 인력의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대상 도서관 사서들이 거의 빠짐없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이다. 도서관 서비스의 질, 독서교실 교육의 질은 인력에서 비롯된다. 어린이실의 인력뿐만 아니라 최근 공공도서관이 IMF이후로 인력은 줄어들고, 신규사서의 보장은 안되면서 업무는 늘어났고, 또한 최근 주5일 근무의 확대로 공공도서관이 전반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재 다른 업무에 비해 어린이실 담당사서들이 어린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도서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준비를 위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

### 3.4 사서재교육

인력보강도 문제이지만 어린이실 사서의 어린이 서비스 및 독서교육에 대한 전문성 또한 미비한 실정이어서 보다 참신하고 시대에 맞는 독서교실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할 독서교실 담당사서들의 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였다.

독서캠프 등과 같이 도서관의 책을 활용하고 도서관 독서교실 수업을 통해서만 꼭 한번쯤 체험해 볼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모임을 구성, 시범실시, 평가 검토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순환근무로 인한 담당실의 특성화 수업계획안 등이 폐지되지 않고 연계될 수 있도록 어린이실 전문사서들의 전문 연수 프로그램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구포도서관 면담지).

보다 다양하고 양질의 수업을 위해 독서교실 담당사서의 교육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 독서교실 담당사서끼리의 업무 교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재송어린이 도서관 면담지).

독서교실만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위해 담당사서들의 연수모임을 결성하여 계획에서부터 실행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현재 이루어지는 독서교실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문제제기한다.

24) Y지역 J도서관 H사서사무관과의 전화면담(2007년 4월 26일).

너무 형식적인 전시 행사로만 비쳐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좀더 알찬 프로그램 개발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러기에 앞서 담당사서들의 전문적인 교육이라든가, 혹은 전문강사의 초빙이 활발히 이뤄 질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해 해오던 방식이 아닌 또 다른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고민해 봐야겠다(중앙도서관 면담지).

이처럼 기존에 해오던 독서교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서도 어린이실 혹은 독서교실 담당 사서의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어린이실 사서 계속교육이 필요하다(부전도서관 면담지).

시대변화에 따른 사서의 재교육 부족으로 독서교육에 대한 준비가 미약하다. 또한 인사이동에 따른 독서교육 전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체계적인 사서의 재교육이 1년에 1~2회는 필요하다(연산도서관 면담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해오던 여름·겨울 독서교실 시행전 1회 단발성 연수보다는, 적어도 독서교실 담당사서들이 실질적인 독서교실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반송도서관 면담지).

몇몇 도서관을 제외하고 대부분 도서관에서 독서교실에 외부강사를 활용한다. 독서교실 담당 사서가 독서교실 프로그램 모두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이나 역량이 안된다. 또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외부 강사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 사서들은 또한 외부강사에 섭외에 따른 정보가 있었으면 한다.

강사를 섭외 할 때 도움을 받고 싶다. 전문강사 데이터베이스 제공이나 추천강사 등 강사 섭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나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북구디지털도서관 면담지).

그러나 강사를 섭외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직접 교과학습 형태의 수업 내용을 가르치는 사교육기관 강사는 삼가해야 한다. 특히 도서관의 독서관련 활동은 학생들이 교과학습과 연관된 주제 자료를 도서관에서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예술이나 문화 혹은 특정 주제 관련 프로그램을 사서가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므로 이분야를 맡아줄 강사를 섭외할 때는 관련 전문 단체, 학교 혹은 협회의 도움이 좋을 듯하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에서 수행되는 독서교육의 주체는 마땅히 사서이다. 특수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더라도 독서교육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사서의 책임이다. 따라서 독서교실 담당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독서교육 관련 강좌 전반에 관한 실제 운영면을 중심으로 재교육이 필요하며, 독서교육 전문사서의 확보가 필요하다.<sup>25)</sup>

### 3.5 업무조직

부산지역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계획서에 따르면, 예산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예산이 전혀 없는 데서부터 몇 만원부터 수십만원에 이르기까지 그 격차가 컸다. 특히 사서들이 예산문제로 제기하는 것 중에는 전문 강사를 초빙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예산이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다.

예산부족으로 외부 강사 영입이 어렵고, 1인이 거의 모든 수업을 전담하는 체제여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외부강사 영입은 수업 내용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담당자의 업무 부담도 줄여줄 수 있다(강서도서관 면담지).

강서도서관은 지역적 특수성으로 교통이 불편하여 참가자 모집 자체가 어렵다고 한다. 따라서 도서관에 올 수 있도록 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문제를 제기하였고, 또한 다양한 독후활동을 접해보지 못한 어린이가 많아 개인지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수업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예산을 확보하여 전문강사 섭외 및 예산에 구애받지 않는 과목을 개설할 수 있기를 바란다(북구디지털도서관 면담지).

정해진 시간동안 정해진 수업은 꼭 해야 하는데 예산은 깎이면 깎였지 늘지는 않기 때문에.. 물론 정해진 예산에서 좋은 강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또 총 수업의 반 이상을 사서들이 전담해야 한다. 따라서 교육할 프로그램이 많은 도서관에서 대부분 비슷한 수업을 준비한다. 다들 참신하고 새로운 수업을 찾지만 강사나 과목이 다들 중복되는 것 같다(남구도서관 면담지).

시설이 미비합니다. 도서관 예산 문제로 다른 도서관에서 다 쓰는 강사분들, 우리는 못 모셔옵니다. 도서관마다 가르치는 방법이나 내용이 틀리다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요(해운대 반여도서관 면담지).

25) 황금숙,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1. 6), p.88.

방학 중에 실시하여 어린이실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점에 독서교실을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가중과 독서교실에 전념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명장 면담지).

어린이실에 근무하던 다른 업무를 하면서 독서교실을 담당하던 모두 독서교육에 전념할 수 없는 업무 구조이다. 그렇다보니 도서관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으로 독서교실을 열자하니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더 참신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해도 예산상의 문제, 정보의 문제로 외부 강사 섭외도 만만치 않다. 또한 예산이나 시설상의 문제로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개설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우리 도서관의 경우, 작년 여름 신축 개관으로 도서관 환경 및 부대시설이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나 기타 대부분의 도서관 시설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리모델링 붐이 일고 있는 요즘, 최신식의 시설과 신간자료 장서가 많이 구비된 학교 등의 시설과 비교하여 공공도서관 시설이 열악하다면 견학 의사가 자연히 멀어진다(구포도서관 면담지).

특히 시설의 미비에 대한 지적은 적은 규모의 도서관에서 더욱 많이 제기하는 문제이다. 교육장소도 협소하며, 시청각 기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설치가 안 되어 있어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시청각실에서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경우 또한 그룹활동이나 미술 영역의 활동을 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한다.

교육장소가 협소하다. 다양한 활동을 위한 적합한 교육장소의 부재로 매 기간마다 불편을 겪고 있다(사상도서관 면담지).

독립적으로 독서교실을 운영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나 도서관의 환경여건이 사실상 완벽한 조건을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되는 게 현실이다(반송도서관 면담지).

독서교실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갖추고 있는 도서관은 어디에도 없다. 독서교실 뿐 아니라 어린이실을 중심으로 독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진행하려면,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사례처럼 어린이실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 4.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방안: 결론에 대신하여

독서교실 운영상 가장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문제점과 개선점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의견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 대상별 독서교실 매뉴얼 및 학부모협조
- 도서관 연합으로 독서캠프 등을 1박2일로 기획하여 공동 운영한다.
-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자관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교안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 교육청의 협조, 학부모의 협조, 도서관의 협조 등
- 시청각 자료로 활용될 독서교실 매뉴얼이 필요하다. 빔 프로젝트를 통해 시각적인 다양한 홍보 자료가 요즘 애들에게 잘 와 닿는 것 같다.
- 지역도서관 간의 단체 캠프와 같은 차별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 독서교실 매뉴얼과 교육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방법
-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예산이 너무 절실히 필요하다.
- 교육할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및 방법과 강사섭외, 예산확보.
- 일주일이란 기간은 어린이들과 감정적으로 유대하기가 너무 짧은 시간이란 생각이 든다.
- 독서와 관련된 활동에서 국한되지 말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독서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교환 및 구체적 운영 모습을 보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 독서교실 매뉴얼을 제공받았으면 합니다.
- 전문화된 교육 또는 교육자료, 독서교실 담당사서간의 간담회 등.
- 도서관 마다 통일된 시설, 프로그램, 예산.
- 대표도서관에서의 대대적인 프로그램 통합 및 개편이 필요
- 전체 도서관의 공통된 독서교실 운영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본다.
- 독서교실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도가 문제이다. 학교 수업의 연장으로 생각한다.
- 예산, 인력, 강사진

우리나라 사서 교육제도나 임용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만 도서관 신참 사서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위의 여러 바람을 한마디로 일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마다 통일된 프로그램을 주고,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담당 사서를 교육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임용시험부터 어린이(교육)사서 따로, 수서업무 사서를 따로 뽑아서 교육시키는 것이겠지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데 무작정 하라고 시켜서 하는 사서들이 많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니깐 손해인 것 같구요. 학교에서도 머니가 못 오겠다. 우리 학교 자료실이 더 좋은데 우리가 왜 가냐, 라는 식으로 나오는 곳도 많습니다. 독서교실에 대한 개념 홍보가 필요합니다(해운대구반여 면담지).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에서 담당사서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크게 독서교실 정체성 및 참여도의 문제, 인력보강, 교육내용 및 담당사서 재교육, 예산, 시설 보완 등 여러 가지로 드러났다. 이 중 인력보강, 예산, 시설의 문제는 독서교실 운영에 나서는 고유의 문제라기보다는 도서관 전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맞물려서 독서교실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도서관 정책 문제로 좀더 장기적이며 거시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프로그램은 어린시절부터 독서교실을 통해 도서관 이용과 독서의 흥미를 유발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도서관 이용의 생활화를 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설되었다. 독서교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국민 독서진흥사업의 일환으로 3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면면히 이어져 왔다. 또한 독서교실로 인해 도서관 이용교육의 일환으로 유아, 초등, 중등 대상 일일독서교실이 만들어져서 활성화되었고, 독서교실 수료이후 도서관 이용과 독서습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 독서회 또한 구성되어 활성화되었다. 이처럼 독서교실은 공공도서관 독서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독서교실의 정체성 위기가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독서의 본질과는 멀어지고 이벤트성 교육내용으로 다른 서비스와 연계성이 희박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공공도서관과 학교와 협력하여 공공도서관에서도 학생들의 교과학습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독서 영역에서는 학교의 왜곡된 독서정책을 지원해서는 안되지 않을까. 아무리 사회의 요구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요구라고 하지만 도서관 고유의 교육적 의도없이 그들의 요구대로 추수되어도 될까.

부산의 독서교육정보시스템이나 독서논술길라잡이와 같은 매뉴얼, 서울시 교육청의 독서지도 매뉴얼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나 사교육기관에서 실행되는 독서검증제도는 결국 독서 수혜자의 입장보다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제기된 강제된 독서교육의 본보기이다. 변화된 사회 환경에 따라 교육환경도 이제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바뀌었고, 제7차 교육과정의 교육원리는 자기 주도적 학습과 창의적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의 독서교육정책은 이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왜 필독도서목록 내에 있는 책만 읽어야 하는가, 왜 같은 책을 읽고 다른 의견을 낼 수 없는가, 왜 책 속의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의 정답을 찾아야 하는가, 왜 나만의 방식으로 책을 읽지

못하고 프로그램화된 매뉴얼대로 책을 읽으라고 강요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 독서교육에서 강조하는 독서는 독서의 본질적인 요소인 즐거움, 자율성, 무상성의 원리에서 벗어난다. 독서의 세 가지 본질적 원리란 “독서는 강제되어서는 안 되는 자발적인 행위여야 하며, 언제, 어떻게, 무슨 책을 읽는지 읽는 이의 자율에 맡겨져야 한다. 무엇보다 독서는 자기 스스로 즐거운 경험에 의해 지속적인 독자로 성장하게 하는 경험 학습이며, 독서한 이후에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도, 평가하여서도 안된다.”<sup>26)</sup>

학교나 사교육시장의 기능주의적인 독서를 대신할 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 독서교육이 필요하다. 이는 바로 도서관에서 그동안 실행해온 독서교실과 같은 ‘자유로운 책읽기’ 경험을 강조하던 프로그램을 통해서 독서교육의 본질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반면, 자극적인 영상매체에 길들여진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책읽기가 도외시된 단순한 체험형’ 프로그램이어서도 안된다. 독서의 세계로 안내하고 더 새롭고 깊은 독서를 체험할 수 있는 ‘책읽기 중심 체험형’이어야 한다.

예를 들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는 겨울방학 동안 어린이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해 연극놀이 ‘책 읽는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다. ‘책 읽는 놀이터’는 도서관과 한국예술종합학교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 후 연극 활동을 유도하고 있다. 즉, ‘브레멘 음악대’나 ‘해와 달이 된 오누이’, ‘흑부리영감’ 등 아이들이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동화는 강사가 동화 속 상황을 제시한 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대사와 움직임을 하도록 이끌며 처음 접하는 창작동화는 강사들이 책을 읽어주며 내용에 따라 연극 활동을 유도한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것이 프로그램의 목표인 만큼 동화책을 연극으로 재구성하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상황을 스스로 그려보게 하기도 하고 있다.<sup>27)</sup> 또한 익산 마동도서관에서는 관내 5~6학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체험 교실 ‘우리! 도서관에서 놀자’를 운영하고 있다. 이 독서체험 교실은 매월 하나의 주제를 정해 책을 읽고, 만들기와 놀이, 자연탐험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단순한 글쓰기와 토론수업이 아닌 책 안에서의 느낌을 자연과 생활 속에서 직접 비교하고 체험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정서순화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sup>28)</sup>

그렇다면 지금까지 다소 연례적이고 형식적인 행사와 같이 독서교실이 교육되어왔다면, 이제부터는 도서관의 정체성과 독서의 본질에 부합하는 독서교실의 교육내용과 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여름·겨울 독서교실의 운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 연구에서는 모두 다루지 못하고 후속 연구로 남긴다. 독서교실의 운영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논의점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26) 김수경, 앞의 논문, p.251.

27) 한국교원신문 보도자료, 2006, 12.

28) 황금숙,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p.70.

이어야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 어린이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독서교실의 위치는 어디인가?

둘째, 독서교실의 목적은 무엇인가?

셋째, 독서교실의 목적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가?

넷째, 독서교실 담당사서는 독서교실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할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는가?

다섯째, 독서교실 담당사서의 연수는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몇 회를 실시해야 하는가?

여섯째, 독서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최소 인력, 예산, 시설은 어떠해야 하며, 정보 공유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일곱째, 독서교실의 발전을 위한 평가 시스템은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이 연구에서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실 실태만을 조사하였는데, 아마도 지역마다 유사한 문제점들이 대동소이하게 있으리라 본다. 도서관의 규모가 다르고 인력구성, 예산, 시설, 장서, 교통, 지역적 특성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프로그램을 요구하여서도 안될 것이다. 그러나 개별 도서관 혹은 지역별, 소속 관청별로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존 국립중앙도서관의 <전국독서교실 운영지침>을 넘어서는 독서교실 운영지침이 필요하다. 이는 독서교실 담당사서들이 요구하는 기획단계부터 실행, 교육과정, 평가 등 일련의 독서교실 운영과정 전반에 관한 안내를 하는 매뉴얼과 같은 형태일 수 있다. 이 매뉴얼에는 위에서 제기한 독서교실 운영에 관한 일곱 가지 논의점에 대한 답을 담고 있어야 한다.

##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07년도 전국독서교실 운영계획」(2006. 11).

국립중앙도서관 편. 『국립중앙도서관 60년사』. 국립중앙도서관, 2006.

김경자. 「공공도서관의 독서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부산시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수경. “독서의 본질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7권 제3호(2006. 9). pp.235-263.

유송숙.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조명숙.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독서교실 프로그램 개발」(부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한국교원신문 보도자료, 2006. 12.



한국도서관협회. 『2006 한국도서관연감』. 한국도서관협회, 2006.

황금숙. “공공도서관 독서교실 운영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2호(2001. 6). pp.76-92.

황금숙. 『어린이·청소년 독서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기초연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2006.

황태숙. 『공공도서관의 어린이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울산지역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문서 및 질문과 면담자료〉

부산광역시교육청 시립시민도서관. 『단위업무 매뉴얼: [사업명] 독서교육』.

부산지역 22개 도서관(강서, 구덕, 구포, 금정, 기장, 남구, 동구, 명장, 반송, 부전, 북구디지털, 사상, 사하, 서동, 수영구, 시민, 연산, 영도, 중앙, 재송어린이, 해운대, 해운대구반여)

- 2007년 독서 교실 운영계획 및 결과보고서

- 독서교실 담당사서와의 면담 및 질문지